

3·1정신 조선광문회 복원위원회, 3·1운동 100주년 학술대회 열어

기사입력 534<135155#;=84



3.1운동 재현 모습.사진=뉴스시스

[글로벌이코노믹 한현주 기자] 사단법인 3·1정신 조선광문회 복원위원회(이사장 송상현)는 22일 3·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‘기미독립선언서와 조선광문회’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날 학술대회에서는 ‘3·1독립선언서의 국외 전파(김도형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) 등 주제발표 4편이 진행됐다.

조선광문회 터인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 송상현 이사장은 “조선광문회는 독립운동의 산실이자, 신문화운동의 요람이며, 애국지사가 우국충정과 독립방략을 논의하던 사랑방이었다”며 “조선광문회를 복

원하면 기미독립선언서 원본과 각종 조선광문회 간행물의 전시장 뿐 아니라 3·1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, 연구, 출판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한현주 기자 han0912@g-news.com

<저작권자 © 글로벌이코노믹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>

기사원문 URL : http://www.g-news.com/view.php?ud=201902221844455405becd74a0af_1

SNS원문 URL : http://www.g-news.com/view.php?ud=201902221844455405becd74a0af_1

프린트하기